

영산강 살리기 이슈 점검

1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영산호 수질 개선” 저층수 배제시설 “해양 생태계 파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가 착수를 발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는 커녕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까지 가세,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국민 혼란도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주장대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가뭄을 대비하면서 생물들의 생태 환경이 개선되는 ‘축복’의 사업인가. 아니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의 공사인가.

통수량 0.009% 불과 해수영향 거의 없고 시설 가동 후에도 퇴적토 바다 유출 안돼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과 관련, 찬·반 공방이 팽팽화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 문제로,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돼 공사 착공을 앞두고면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 모든 후보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시설은 저층수 배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 없었다. 특히 영산강하구둑의 경우 지난 1978년 착공, 1982년에 준공되면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보완하게 돼 영산호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영산호 저층(底層)에 배제시설을 설치해 4급수 물을 바다로 뺐아 내는 방안이 영산강을 살리기 커녕 오히려 해양 생태계에 큰 충격을 초래해 서남해안 바다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지름 2.2m에 길이 780m와 640m인 관로 2개를 수심 9.35m 아래에 설치, 영산호 저층수를 뺐을 때 바다쪽으로 40m 내보내는 것도 배수갑문과 함께 가동되는데다, 배수갑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양의 0.009%에 불과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수갑문이 가동될 때 배제되는 통수량이 1만4827m³/초인 반면, 저층수 배제시설을 통한 통수량은 최대 1.33m³/초에 불과해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목포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이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대안도 없이 추진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발상”, “목포 앞바다 죽이기”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여기에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는 저층수 배제시설을 가동했을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물 속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나 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등이 바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배제시설을 가동하기 전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은 “영산강 저층수를 바다로 그대로 빼내면 주변 해양 생태계가 나빠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청정 해역을 죽이는 일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 태세를 고수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환경단체와 화해, 주민 등이 “저층수 배제시설이 가동돼 영산강 하구둑 바닥의 퇴적토 있는 흙, 특히 오염된 퇴적토인 오니토(汚泥土)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태계 파괴는 시간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입장은 다르다. 일부 주민들 생각처럼 크게 우려할 부분은 못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구조개선팀 차장은 “저층수 배제시설은 배수갑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영산호 내부 깊은 곳에 있는 고농도 염분의 저층수를 바다로 배제시키는 장치로, 지난 1987년 이후 건설된 국내 방조제에는 모두 설치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해수오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호 수심은 9.35~21.5m에 달하는 반면, 저층수 배제시설은 수심 9.3m에 설치하는 만큼 바다에 쌓여있는 오염된 퇴적토를 빼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층수 배제시설을 설치해 운영중인 방조제의 경우 ▲영양방조제 ▲금호 ▲고흥 ▲시화 ▲보령 ▲홍보 ▲화흥 ▲새만금 등 모두 7곳. 최근 준공한 새만금 방조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17년째 운영중이다.

영산호 수심은 9.35~21.5m에 달하는 반면, 저층수 배제시설은 수심 9.3m에 설치하는 만큼 바다에 쌓여있는 오염된 퇴적토를 빼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구조개선 박종호 팀장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 해양오염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에 따라 이 방안에는 저층수 배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게 농어촌공사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가운데 영산호의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를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의 영산강 하구둑 전경(위)과 배수갑문을 늘리면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친환경 어도가 조성되는 등 달라지게 되는 영산강 하구둑 조감도.



1.6km 친환경 어도 설치...물고기 생태 한 눈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이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물고기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어도가 조성, 지역 주민들에게는 ‘친환경적 생태 공간’이 생긴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구조개선사업 구간 내 설치되는 어도의 경우 전체 면적이 23.8ha에 달하고 강물과 바다쪽에서 영산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연형 수로식 어도(1.6km)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좋아하는 생물들의 생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습지형 연못을 비롯, 어도를 통해 이동하는 웅어, 칠성장어, 뱀장어, 줄고치, 전어, 농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영산호나 영산호 배수갑문을 넓히고 연락수로를 확장하는 사업 이외에도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토록 해 자연경관이 좋아지는 만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uk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ukrakjeon Namgol-dang Association.

Advertisement for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Changing names changes destiny) by the Kukrakjeon Namgol-dang Associ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services.